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**보 도 자 료**	보고서명	**전망공시의 현황과 특성 및 정보가치**
	문의	이하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885, hayoon@kcmi.re.kr)

○ 국내 전망공시 활용은 장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정보전달 기능은 유효: 자발적 공시 유인 강화와 정보의 질 개선 필요

— 전망공시는 시장의 기존 기대와 다른 미래 실적정보를 전달하고, 실제 실적 발표에 앞서 관련 정보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데 기여

— 면책 기준의 예측가능성 제고, 주요 가정과 위험요인의 구체화, 합리적 정정 및 구간 전망 활용 확대 등 제도적 개선 필요

○ 2002~2025년 국내 상장기업의 전망공시를 분석한 결과, 전망공시 활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

— 2025년 전망공시 기업 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약 7%, 코스닥시장 약 1% 수준이며, 산업별 활용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

— 전망공시는 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핵심 재무성과에 집중되어 있으며, 전체 전망치의 98%가 단일 수치를 제시하는 점추정 방식으로 제공됨

— 주요 가정과 산출 근거가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사례가 있어 전망정보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

○ 전망공시의 예측 정확성에는 항목별 차이가 있으나, 시장의 기존 기대와 다른 미래 실적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
— 매출액 전망보다 영업이익 전망의 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낙관적 편향도 더 뚜렷하게 나타남

— 기업 전망치가 시장 기대(사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)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에 따라 주가가 각각 양(+)과 음(-)의 방향으로 차별적으로 반응함

— 이는 전망공시 활용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기업의 미래 실적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가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줌

○ 전망공시 이후 실제 실적 발표까지 미래 실적정보가 단계적으로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

— 기업이 발표한 전망치가 기존 시장의 예상과 다를 경우 전망공시 시점에 주가가 반응하고, 이후 실제 실적이 기업의 전망치와 다르게 나타나면 실적 발표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발생

— 전망치가 실제 실적에 가까울수록 실적 발표 시점의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이 관찰됨

— 정정공시의 대부분은 최초 전망보다 실제 실적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, 시장도 전망치의 상향·하향 정정에 차별적으로 반응하여 정정공시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함

○ 전망공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기업의 자발적인 미래정보 제공을 유도하고, 정보의 질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

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전망에 대해 면책제도의 적용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한편, 전망치 산출의 핵심 가정과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할 필요

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정정을 정상적인 정보갱신 과정으로 정착시키고, 미래 실적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간 전망 활용을 확대할 필요

— 전망공시의 지속성·비교가능성·신뢰성을 높여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성과와 불확실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 관행을 개선할 필요